

전일동향

전일대비 7.10원 하락한 1,422.50원에 마감

5일 환율은 전 거래일 증가 1,432.50(15:30 기준) 대비 2.0원 하락한 1,430.50(06:00 기준)에 개장했다. 환율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 기대감이 시장 전반 위험회피 심리를 완화하며 환율 하락해 전일대비 7.10원 하락한 1,422.50원에 증가 (06:00 기준)를 기록했다. 주간 장중 변동 폭은 10.90원이었다. 한편, 이날 외환시장 마감 시점의 엔-원 재정환율은 901.15이다.

전일환율변동	구분	시가	고가	저가	종가	평균환율 (매매기준율)
	달러	1430.50	1431.70	1420.80	1422.50	1424.80
	엔화	900.07	907.65	899.76	901.15	-
	유로화	1637.03	1650.74	1636.40	1642.54	-
* 시가/고가/저가/종가 : 달러는 익일 06:00 기준, 엔화 및 유로화는 15:30 기준						

F/X(달러-원) 스왑포인트		1M	3M	6M	12M
	보장환율(수출)	-0.6	-2.49	-6.68	-14.49
	결제환율(수입)	-0.22	-1.31	-4.47	-10.7
*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,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					
*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,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(https://www.ksure.or.kr/rh-fx/index.do) 확인					

금일 전망

달러 약세에...1,420원대 중심 등락 전망

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(-0.45원)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(1,424.50, 15:30 기준) 대비 3.05원 하락한 1,421.0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.

금일 환율은 중동 리스크 완화 기대 및 글로벌 약달러 영향에 하락 전망한다. 이란이 오만과 호르무즈 해협 공동 항로 운영 및 통행 관련 논의에 합의했다고 밝히면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대한 기대가 확산되었다. 이에 국제유가와 미국 국채금리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, 이는 곧 달러 약세로 이어지는 흐름이다. 여기에 미국의 민간 고용지표도 시장 예상보다 부진하게 발표되며 글로벌 달러 약세가 심화됨에 따라, 금일 환율은 추가 하락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. 여기에 미-일 당국의 엔화 지지 기조에 원화를 비롯한 아시아 통화 전반이 절상 압력 받을 수 있는 점도 금일 환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. 다만, 연준 이사의 매파적 발언 등 정책 불확실성과 저점 인식에 따른 수입업체 결제수요 등 달러 매수세는 하단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.

금일 달러/원 예상 범위	1416.75 ~ 1428.75 원
체크포인트	■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: +14463.68 억원
	■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(NDF) :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3.05원 ↓
	■ 美 다우지수 : 54349.12, +263.24p(+0.49%)
	■ 전일 현물환 거래량(종합) : 227.33 억달러
	■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: -7218 억원